

## 자료 안내

1. 본 자료는 '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봉투 모의고사 6회분 (2018년)' 구매자들을 위해 제작된 무료 학습 자료입니다.

현자의 돌 생활과 윤리 봉투 모의고사 6회분 (2018년) - 6.89월 평가원, EBS 연계교재 완벽 반영, 2019 수능 대비 | 현자의 돌 시리즈 (2018년) 🔍

무료배송 | 특가쿠폰

임수민 (지은이) | 메가스터디교육 | 2018-09-20

공유 | URL

**모의고사**  
2019학년도 수능 대비  
현자의 돌  
생활과 윤리

**[참고서 사은품! 무민 북엔드, 신발 파우치 (3만원 이상부터)]**

정가 : 13,000원  
판매가 : **11,700원** (10%, 1,300원 할인) | 무이자 할부 ?  
마일리지 : 650점(5%) + 멤버십(3~1%) + 5만원이상 구매시 2,000점 ?  
↳ 국내도서 외 상품 포함 구매에 한함

세액절감액 : 530원 (도서구입비 소득공제 대상 및 조건 충족 시) ?  
추가혜택 : 카드/간편결제 할인 ▶

이 책의 전자책 : 출간된 전자책이 없습니다. [출간알림 신청](#)

반양장본 | 26쪽 | 300\*410mm | 70g | ISBN : 9791188449323

배송료 : 신간도서 단 1권도 무료 ?  
수량예상일 : 지금 택배로 주문하면 내일 수령 가능 ▶  
88.1% 최근 1주 확률 (서울 중구 중림동 지역만점)

주문수량 : 1

[장바구니 담기](#) [바로구매](#) [선택하기](#)  
[보관함 담기](#)

**사라진 소망차**  
오네스피,  
헨닝 앙겔 추천  
마르틴 베크 시리즈 출간  
#1

★★★★★ **10.0**

- \* 고등학교참고서 주간 4위
- \* 고등학교참고서 top100 2주
- \* Sales Point : **12,740** ?

- \* 읽고 싶어요 (0명)
- \* 읽고 있어요 (0명)
- \* 읽었어요 (49명)
- \* 100자평 (3편) ✎
- \* 리뷰 (46편) ✎

[이 책 구매요?](#)

[알라딘에 팔기](#) [회원에게 팔기](#)

[종고 등록 알림 신청](#)

(2018.10.14.자 알라딘 고등참고서 주간 4위, 60명의 최대 검토진이 참여한 고컬리티 모의고사, 6회분 11700원 초저가 판매中)

2. 본 자료는 '수능&평가원 기출 中 가족, 친구 윤리 문항' 모음 자료입니다.

## 3. 학습법:

- ① 해당 단원이 부족한 학생은 여러 번 반복 출력해서 푸세요.
- ② 모르겠는 문항은 전개년 연도별 해설(EBS)에서 학년도를 검색하여 해설을 참고하세요.

4. 본 자료는 경제적 불평등이 교육의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, 경제적 어려움이 삶의 어려움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돕고자, '교육 평등의 가치 실현'을 위해 제작되었습니다.

5. 본 자료는 비 상업적 목적에 한정하여 자유롭게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.(친구분들과 file을 공유하거나, 학교 학생들에게 배포하는 등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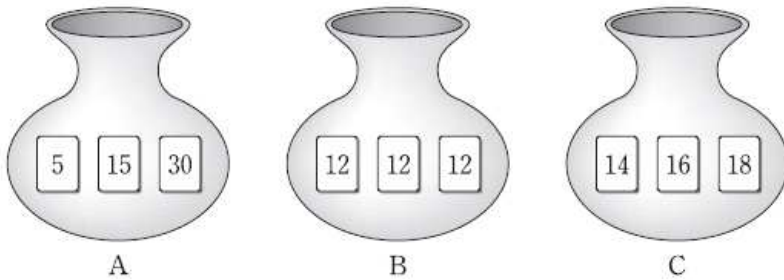
6. 본 자료에 수록된 문항의 저작권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있습니다.

편집 및 수정된 선지, 새로 작성된 해설에 대한 2차 저작권은 현자의 돌에게 있습니다. 상업적 목적을 위한 불법 복제를 금합니다.

7. 자료 정오표: cucuzz.com 로 문의주시면 됩니다.

1. ㉠, ㉡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 (2014.예비.10)

정의는 구성원들이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합의할 때 확보된다. 만약 사람들이 자신의 선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 등을 모르는 무지의 배일 상태에 있다면,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주는 분배 방식에 합의할 것이다. 그 이유는 ㉠. 이것을 제비뽑기에 비유한다면 아래 그림의 A, B, C 분배 방식 중에서는 ㉡를 선호하여 거기에서 하나의 제비를 뽑으려 한다는 것이다. 이는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도덕적 근거가 된다.



\* 수치는 이익의 크기를 나타냄

	㉠	㉡
①	최악의 경우보다는 최선의 경우를 먼저 고려하는 성향 때문이다	A
②	사회 전체의 이익보다는 균등과 형평을 추구하는 성향 때문이다	B
③	최악의 경우보다는 최선의 경우를 먼저 고려하는 성향 때문이다	C
④	최악의 경우를 먼저 고려한 후 그 중에서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는 성향 때문이다	A
⑤	최악의 경우를 먼저 고려한 후 그 중에서 더 나은 상태를 추구하는 성향 때문이다	C

2. (가)의 갑, 을 모두가 (나)의 그림과 관련하여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?[3점](2014.6.19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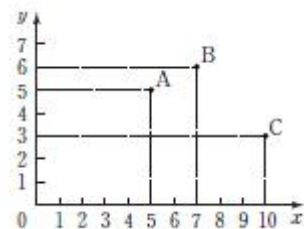
(가)

갑: 사회적·경제적 불평등은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이 보장될 때 정당화된다.

을: 개인들의 이익의 총합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.

(나)

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두 사람뿐이고, 가능한 분배 방식 A, B, C를 통해 구성원 각각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를 x, y라고 가정하자.



- ① B가 A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?
- ② C가 A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?
- ③ B와 C는 똑같이 정의로운 분배 방식인가?
- ④ A, B 중에서 C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있는가?
- ⑤ A, C 중에서 B보다 더 정의로운 분배 방식이 있는가?

3. (2014.9)

11. 다음 서양 사상가 감의 입장에서 <문제 상황> 속의 A가 선택할 분배 방식과 그 이유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감: 사회 구성원들이 자신의 사회적 지위나 계층, 천부적 자산과 능력 등을 모르는 무지의 배일 상태에서 합의한 정의의 원칙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된다.

<문제 상황>

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x, y, z 세 명뿐이고, 이들은 모두 무지의 배일 속에 있다. x, y, z 중 어떤 사람이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있는 A는 다음 표에서 어떤 분배 방식을 선택할지를 고민하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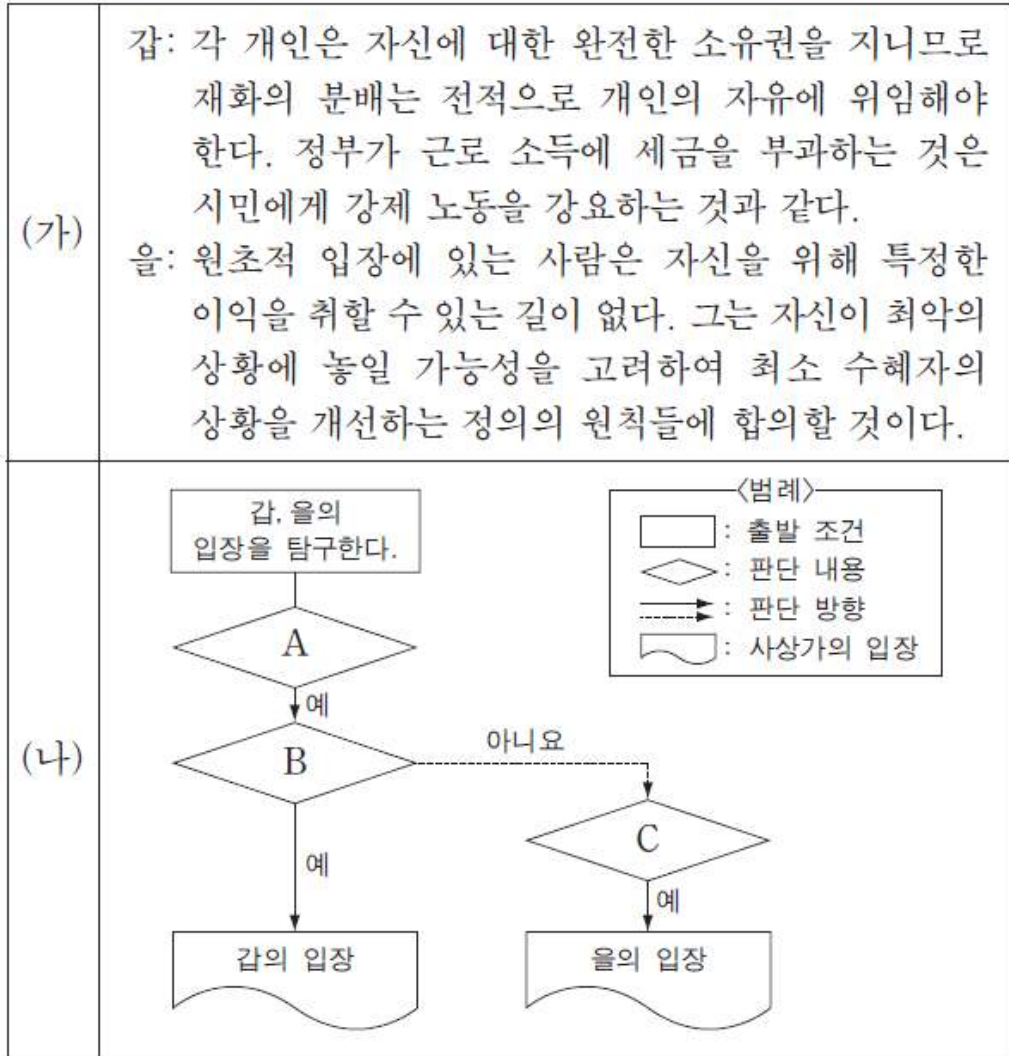
분배 방식 \ 구성원	x	y	z
d1	2	9	13
d2	5	6	8

\* 표의 수치는 d1, d2의 분배 방식을 통해 x, y, z가 각각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이다.

- ① 사회 구성원들의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으므로 d1을 선택한다.
- ②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제공해 주므로 d1을 선택한다.
- ③ 사회 구성원들 사이의 소득 격차가 적으므로 d2를 선택한다.
- ④ 각자의 필요에 따라 차등 분배가 이루어지므로 d2를 선택한다.
- ⑤ 자신이 처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를 고려하므로 d2를 선택한다.

4. (2014.11)

7. (가)의 갑, 을 사상가들의 입장을 (나) 그림과 같이 탐구하고자 할 때, A~C에 들어갈 질문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

- ① A: 개인은 자신의 이익 증진에 관심을 가진다고 가정하는가?
- ② B: 사회 복지 증진을 위한 정부의 재분배 정책에 반대하는가?
- ③ B: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사회적·경제적 불평등이 존재하는가?
- ④ C: 개인의 타고난 재능을 사회의 공동 자산으로 간주하는가?
- ⑤ C: 절차의 공정성은 결과의 공정성을 보장한다고 간주하는가?

5. (2015.6)

15. (가)의 갑, 을,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사회·경제적 불평등은 차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을 충족시킬 때에만 정당화된다.</p> <p>을: '취득·양도·교정에서의 정의의 원리'에 따라 개인이 타고난 재능을 통해 획득한 재화에 대해서는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해야 한다.</p> <p>병: 구성원들의 이익을 평등하게 고려하여 사회 전체의 이익을 최대화해야 한다.</p>
(나)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/div> <div style="margin-left: 200px;"> <p>—〈범례〉—</p> <p>A: 갑만의 입장          B: 을만의 입장          C: 병만의 입장          D: 갑, 을, 병의 공통 입장</p> </div>

—〈보기〉—
<p>ㄱ. A: 사회 전체를 위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된다.</p> <p>ㄴ. B: 복지를 위한 정부의 모든 재분배 정책에 반대해야 한다.</p> <p>ㄷ. C: 공리의 원리에 따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추구해야 한다.</p> <p>ㄹ. D: 결과적 평등을 재화 분배의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된다.</p>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ㄴ, ㄹ  
 ④ ㄱ, ㄷ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ㄴ, ㄷ, ㄹ

6. (2015.9)

19. 갑, 을이 <사례> 속 A국가의 정책에 대해 취할 적절한 입장을 <보기>에서 고른 것은? [3점]

갑: 개인이 정당한 노동으로 취득한 소득에는 침해할 수 없는 소유권이 인정된다. 국가는 범죄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계약 이행을 감시하는 최소국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.

을: 개인들은 원초적 상황에서 합리적 선택을 통해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 기초한 원칙들을 합의하게 된다. 이 원칙들은 사회 기본 구조의 원리가 된다.

<사 례>

A국가는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인 사회적 약자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상속세율과 비례적 소비세율을 인상하여 교육 예산을 증대하였다.

—<보 기>—

- ㄱ. 국가가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책이므로 반대한다.
- ㄴ. 사회적 우연성에 따른 불평등을 완화하므로 지지한다.
- ㄷ. 기회의 공정성보다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므로 지지한다.
- ㄹ. 구성원 간의 기본적 자유의 평등을 부정하므로 반대한다.

- |   |          |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|
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---|----------|----------|
|   | <u>갑</u> | <u>을</u> |   | <u>갑</u> | <u>을</u> |   | <u>갑</u> | <u>을</u> |
| ① | ㄱ        | ㄴ        | ② | ㄱ        | ㄷ        | ③ | ㄴ        | ㄷ        |
| ④ | ㄴ        | ㄹ        | ⑤ | ㄷ        | ㄹ        |   |          |          |

7. (2015.11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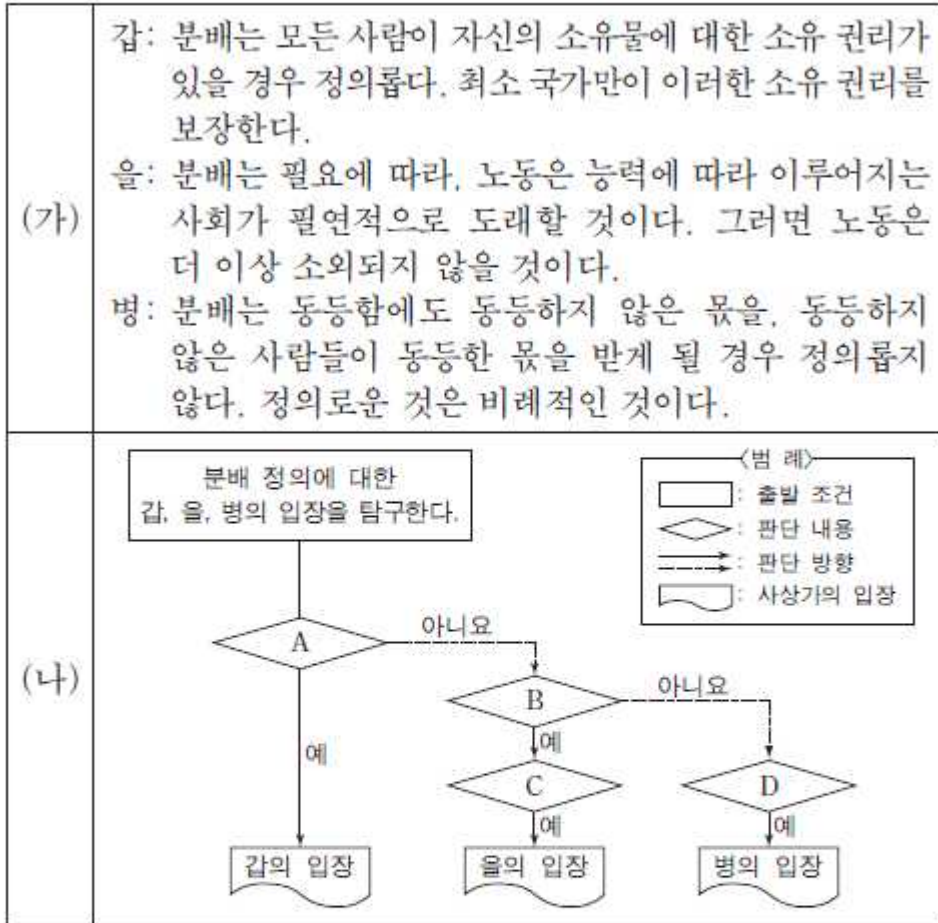
15. (가)의 서양 사상가 갑, 을이 (나)의 그래프에 제시된 분배 방식 A~C에 대해 취할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개개인의 행복은 사회 전체의 행복으로 연결되며,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은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만큼 더 좋은 일이다.</p> <p>을: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들은 자신이 최악의 상황에 놓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, 최소 수혜자에게 최대의 이익을 보장하는 정의의 원칙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.</p>
(나)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* 사회 구성원은 세 사람뿐이고, 가능한 분배 방식 A, B, C를 통해 구성원 각각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의 크기를 x, y, z라고 가정함.</p>

- ① 갑은 중산층의 이익을 중시하여 C보다 B를 지지한다.
- ② 갑은 능력에 따른 재화의 분배를 중시하여 C를 지지한다.
- ③ 을은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정의의 원칙을 근거로 B를 지지한다.
- ④ 을은 최소 수혜자에 대한 우선적 배려를 중시하여 A를 지지한다.
- ⑤ 갑은 개인의 이익을 중시하여, 을은 공익을 중시하여 A를 지지한다.

8. (2016.6)

11. (가)의 갑, 을,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, A~D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

— < 보 기 > —

ㄱ. A: 소유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국가만이 정의로운가?  
 ㄴ. B: 재화의 분배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맡겨야 하는가?  
 ㄷ. C: 자본주의의 노동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 강제된 것인가?  
 ㄹ. D: 각자의 가치에 비례하여 각자의 몫이 분배되어야 하는가?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ㄴ, ㄷ  
 ④ ㄱ, ㄷ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ㄴ, ㄷ, ㄹ



9. 현대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[3점] (2016.9. 13)

갑: 정의의 원칙은 개인이 무엇을 소유할 수 있는 정당한 자격을 유일한 근거로 한다. 정당한 자격을 가진 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고 교환하는 절차의 규칙을 위반하지만 않는다면, 어떤 사람은 부유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하다는 사실이 불행일 수는 있으나 불공정하지는 않다.

을: 정의의 원칙은 권리 할당과 이익 배분의 근거 원리이다. 개인이 어떤 여건에서 태어나는 것은 정의롭지도 부정의하지도 않은 임의적 사실이다. 이 사실을 다루는 제도가 정의로운지의 여부는 합리적 개인들이 유불리를 배제한 채 도출한 원칙에 의거하였는지에 달려 있다.

- ① 갑은 정의 원칙이 가상 상황에서의 합의를 통해 구성된다고 본다.
- ② 을은 평등한 기본적 자유가 공정한 재분배에 항상 앞선다고 본다.
- ③ 갑은 을과 달리 소유권이 보장되면 균등 분배가 실현된다고 본다.
- ④ 을은 갑과 달리 정의 원칙은 다수결 절차에 따라 도출된다고 본다.
- ⑤ 갑은 최소 국가를, 을은 복지 국가를 재분배의 실행 주체로 본다.

10. 다음 사상가가 부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? [3점] (2016.11. 14)

최초의 정당한 취득 행위에 이어 자발적인 교환 행위로 재산의 정당한 이전(移轉)이 잇따르게 된다면, 사람들이 정확히 자신의 것만을 소유하게 되는 정당한 결과가 나온다.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강자가 약자의 소유물을 빼앗아 온 역사이기도 하다. 따라서 그간 부당하게 발생한 이전들을 보상함으로써 교정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. 이상의 내용을 하나의 원칙으로 표현하면, '각자는 자신이 선택한 대로 주고, 각자는 자신이 선택받은 대로 받는다.'가 된다.

- ① 최소 국가만이 유일하게 정의로운 국가인가?
- ②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는 강제 노동과 동등한가?
- ③ 나의 천부적 재능은 공동 자산이 아니라 나의 소유인가?
- ④ 모든 우연성이 배제된 상태에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가?
- ⑤ 사회적 약자를 위한 분배는 오직 개인의 자유에 맡겨야 하는가?

11.(2017.6)

11. (가)를 주장한 사상가가 (나)의 상황 S1~S4에 대해 제시할 주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? [3점]

(가)	<p>차등의 원칙은 '그의 ~에 따라서 각자에게' 라는 구절을 완성하려는 정형(定型)적인 정의의 원칙이다. 그런데 고정된 정형적 원칙은 개인의 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수 밖에 없다. 따라서 비정형적인 정의의 원칙에 입각한 소유 권리론만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.</p>
(나)	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"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S1: 갑은 정당한 노동으로 재화 g를 취득했다.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5px 0;">↓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S2: 을은 갑에게서 g를 자유롭게 양도받았다.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5px 0;">↓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S3: 병은 을에게서 g를 강제적으로 빼앗았다.</div> <div style="text-align: center; margin: 5px 0;">↓</div> <div style="border: 1px solid black; padding: 5px; width: fit-content; margin: 0 auto;">S4: 정은 병에게서 g를 자유롭게 양도받았다.</div> </div> <p style="text-align: right; font-size: small;">* 화살표(↓)는 상황(S)의 경과를 나타낸다.</p>

- ① S1에서 갑은 g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.
- ② S1이 정의로운 분배 상황이라면 S2도 그렇다.
- ③ S3에서 을은 g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.
- ④ S4는 S3과 달리 정의로운 분배 상황이다.
- ⑤ S4에서 정은 g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다.

12. 갑, 을,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 (2017.9.8.)

갑: 개인의 타고난 자산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임의적이건 아니건 간에, 개인은 그 자산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닌다. 또한 이로부터 나오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.

을: 개인의 타고난 능력이 불평등하다는 점, 따라서 생산 능력도 타고난 특권임을 승인하는 것은 부당하다. 생산은 각자의 능력에 따라, 분배는 각자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.

병: 개인의 타고난 재능은 응분의 것이 아닌 사회 공동의 자산으로 간주해야 한다. 더 불운한 자들의 선에 도움이 되는 한에서만 그 행운으로부터 이익을 취할 수 있다.

- ① 갑: 부의 소유와 거래 및 교정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배제된다.
- ② 을: 노동 분업은 소외된 노동을 해방시켜 필요에 따른 분배를 실현한다.
- ③ 병: 공정으로서의 정의관에서 사회는 상호 이익을 위한 협동 체제이다.
- ④ 갑, 병: 선천적 유불리의 영향을 줄여야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.
- ⑤ 을, 병: 사적 소유권은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로 승인될 수 없다.

13. 갑, 을, 병 사상가들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 [3점] (2017.11.18)

갑: 정의는 합법적이며 공정한 것을 의미한다. 특수한 정의의 한 종류는 명예, 금전 등의 분배에 관련되는 것이고, 다른 종류는 사람들 간의 거래에 관련되는 것이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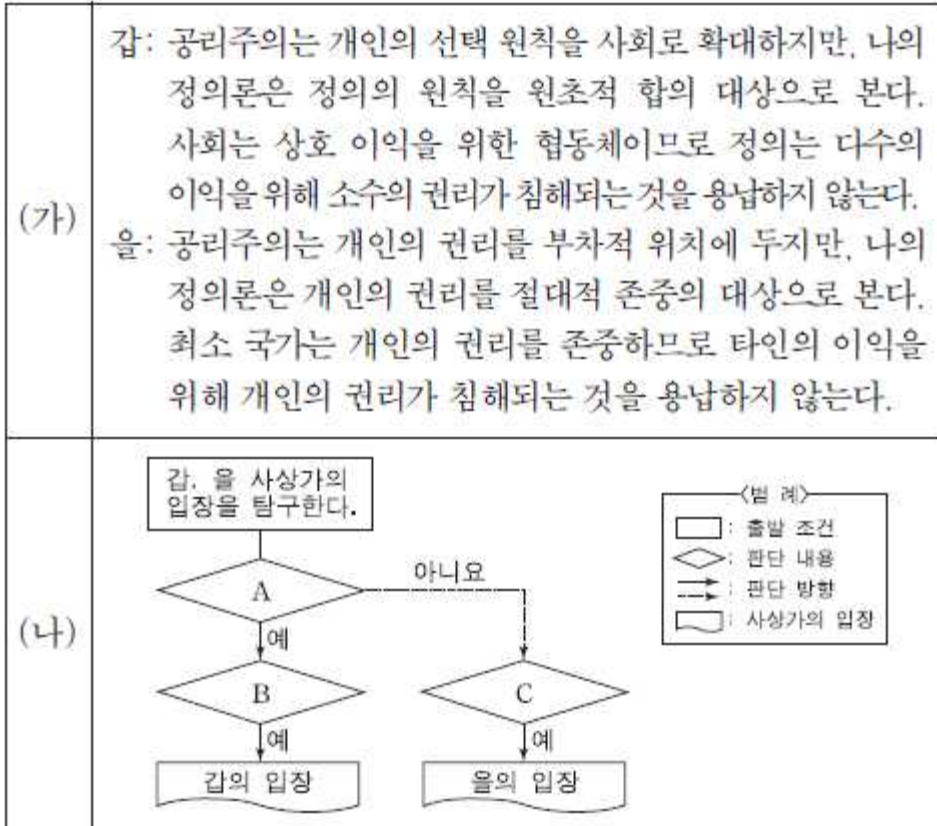
을: 정의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갖는 것이다. 정의의 원리에 따르면 과거의 상황이나 행위는 사물에 대한 응분의 자격을 창조한다.

병: 정의는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고 사회적 이익을 적절하게 분배하는 원칙들의 역할에 의해 규정된다. 정의의 원칙들은 평등한 최초의 입장에서 합의할 대상이다.

- ① 갑: 정의로운 분배는 비례적이고 부정의한 분배는 비례에 어긋난다.
- ② 을: 최소국가보다 기능이 확대된 국가의 도덕적 정당화는 불가능하다.
- ③ 병: 천부적 재능 분포의 우연성은 그 자체로 부정의한 사실이다.
- ④ 갑, 병: 정의로운 사회는 각자에게 각자의 당연한 몫을 할당해야 한다.
- ⑤ 을, 병: 다수의 이익을 명목으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.

14. (2018.6)

10. (가)의 사상가 갑, 을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할 때, A~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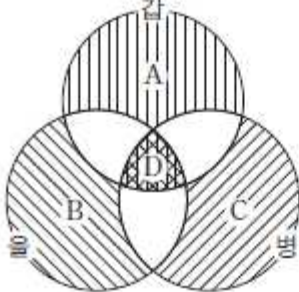
— < 보 기 > —

ㄱ. A: 공리의 극대화를 위해 기본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가?  
 ㄴ. B: 원초적 합의는 심리학적 사실에 대한 지식을 배제할 필요가 없는가?  
 ㄷ. B: 기본 제도가 공정해야 사회 구성원의 자발적 협동이 가능한가?  
 ㄹ. C: 최소 국가는 개인 간의 계약 이행에 절대로 개입해서는 안 되는가?

- |           |           |  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|
| ① ㄱ, ㄷ    | ② ㄱ, ㄹ    | ③ ㄴ, ㄷ |
| ④ ㄱ, ㄴ, ㄹ | ⑤ ㄴ, ㄷ, ㄹ |        |

15. (2018.9)

11. (가)의 갑, 을, 병 사상가들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표현할 때, A~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진술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[3점]

(가)	<p>갑: 정의는 본성상 정치적 동물인 사람들 사이에서 같은 것은 같게, 다른 것은 다르게 분배할 것을 요구한다.</p> <p>을: 정의는 도덕과 입법의 원리인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 유용성을 극대화할 것을 요구한다.</p> <p>병: 정의는 최소 수혜자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절차적 공정성을 보장할 것을 요구한다.</p>
(나)	<div style="display: flex; align-items: center;">  <div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p>— &lt;범례&gt; —</p> <p>A: 갑만의 입장</p> <p>B: 을만의 입장</p> <p>C: 병만의 입장</p> <p>D: 갑, 을, 병의 공통 입장</p> </div> </div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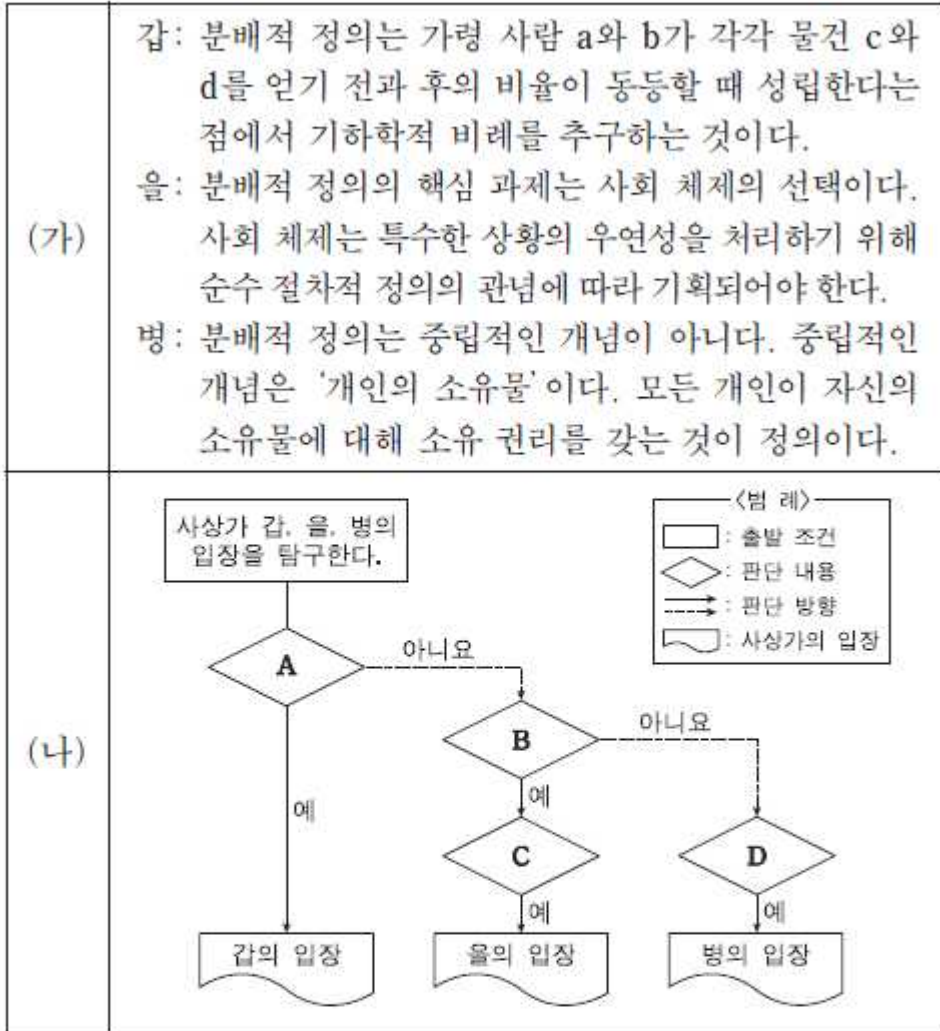
— <보기> —

<p>ㄱ. A: 분배 정의는 기하학적 비례의 동등함을 추구하는 것이다.</p> <p>ㄴ. B: 분배의 옳고 그름은 쾌락과 고통의 총합에 의해 결정된다.</p> <p>ㄷ. C: 누구에게도 이익이 되지 않는 분배는 정의롭지 않다.</p> <p>ㄹ. D: 사회적·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해도 분배 정의는 실현 가능하다.</p>
---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ㄷ, ㄹ
- ④ ㄱ, ㄴ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ㄴ, ㄷ, ㄹ

16. (2018.11)

9. (가)의 사상가 갑, 을, 병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할 때, A~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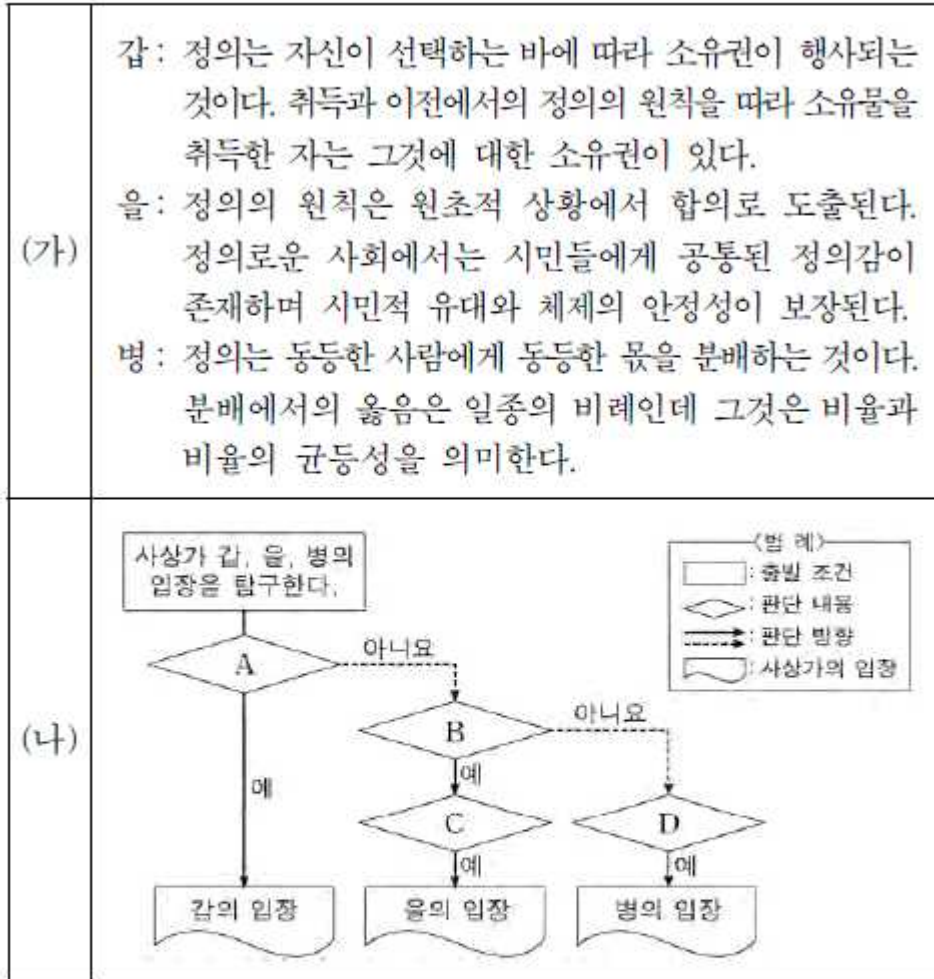
— <보기> —

ㄱ. A: 분배적 정의만이 비례를 추구하는 특수적 정의인가?  
 ㄴ. B: 경제적 불평등은 모두에게 이익이 되어야 정당한가?  
 ㄷ. C: 원초적 입장에서 개인은 모두의 이익에 관심을 갖는가?  
 ㄹ. D: 개인의 자연적 재능을 공동의 소유물로 여기는 것은 부당한가?

- ①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ㄴ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ㄷ, ㄹ  
 ④ ㄱ, ㄴ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ㄱ, ㄴ, ㄹ

17. (2019.6)

14. (가)의 사상가 갑, 을, 병의 입장을 (나) 그림으로 탐구할 때, A~D에 해당하는 적절한 질문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



<보 기>

- ㄱ. A: 재화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서만 이전되는가?  
 ㄴ. B: 정의로운 사회의 시민은 타인의 처지와 이익에 무관심한가?  
 ㄷ. C: 공정한 기회균등 원칙은 경제적 불평등을 허용하는가?  
 ㄹ. D: 분배와 교환의 정의는 모두 비례의 동등함을 따라야 하는가?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ㄴ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ㄷ, ㄹ  
 ④ ㄱ, ㄴ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ㄱ, ㄷ, ㄹ

18.(2019.9)

15. 갑, 을 사상가들의 입장만을 <보기>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?  
[3점]

갑: 정의의 원칙은 가상적 상황에서 무지의 베일을 쓴 당사자들의 합의를 통해 얻어져야 한다. 이들은 이 상황에서 평등한 자유의 원칙, 공정한 기회균등의 원칙, 차등의 원칙에 합의할 것이다. 이 원칙들을 만족시키는 한에서 정의로운 분배가 가능하다.  
을: 어느 누구도 취득과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의하지 않고서는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를 가질 수 없다. 국가는 강압·절도·사기로부터의 보호, 계약 집행 등과 같은 제한적 역할만을 수행해야 한다.

—<보 기>—

ㄱ. 갑: 차등의 원칙만 충족한다면 어떠한 분배 결과도 정당화된다.  
ㄴ. 갑: 가상적 상황의 당사자는 경제학의 일반적 사실을 안다.  
ㄷ. 을: 분배 결과의 정당성은 분배 과정의 정당성에 근거한다.  
ㄹ. 갑, 을: 정의로운 사회에서도 경제적 불평등은 정당화될 수 있다.

- ① ㄱ, ㄴ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② ㄱ, ㄷ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③ ㄷ, ㄹ  
④ ㄱ, ㄴ, ㄹ 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⑤ ㄴ, ㄷ, ㄹ



⑤⑤⑤③⑤  
①③④②④  
④③③③④  
②③⑤